

한·영 정상 공동 기자회견

▲ **질문** : 북한 핵 문제와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내일 시간을 내셔서 특별회견을 하기로 하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무슨 내용을 밝히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평화적 해결을 양 정상이 합의하고, 기자회견장에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전쟁위기설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들쭉날쭉한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구상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해주시시오.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지한 대화자세도 필요하지만, 미국이 지금처럼 압박적인 태도만 취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북한과 협상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태도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한국의 친구이자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막역한 친구 사이인 블레어 영국 총리가 무엇인가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어떤 기대를 대통령께서는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노무현 대통령** : 먼저 정치자금 문제에 관해 말씀을 하셨는데, 야구를 할 때는 야구 얘기를 하고, 축구 할 때는 축구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야구 얘기를 하는데 축구 얘기가 그냥 섞여서 범벅이

되면 좀 혼란스러울 테니 오늘은 정상회담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 가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그 다음에 북핵 문제로 인한 위기설이 나오는데, 보통 짜릿하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6개월 전보다 위기적인 상황이 가라앉고 안정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여섯 달 전에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무력행사의 가능성, 그로 인한 사태 악화의 가능성이 아주 자주 거론됐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불안하게 생각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시장, 특히 자본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국내외에 세계 모두가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대화의 방안들을 모색해 가고 있으며, 점차 의견들이 접근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안정됐다. 그런데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협상에서 다 흔히 당근과 채찍이 번갈아 나오게 돼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압력수단을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떤 호의적인 조치를 얘기할 때도 항상 있는 것이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압력만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대체로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 있게, 호의적인 발언과 압력에 속하는 발언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대화는 상당히 낙관할 수 있는 여러 징조들이 또한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도 이 국면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그리고 그밖에도 국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력 있는 국가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그 영국의 총리이고, 아울러서 전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역량 있는 정치지도자이다. 따라서 토니 블레어 총리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도 미국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영국은 북한과 수교하고,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영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나 또는 북한에 대한 설득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 **질문** : 좀 전에 토니 블레어 총리께서 북한 핵문제가 매우 위험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라크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위험한 문제였는데, 이라크 문제는 유엔 결의안이라든지 전쟁참여 등 극단적인 해결책을 채택하시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 : 제가 여기 이 지역을 방문하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 핵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국제사회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이고,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지,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할 것인지 하는 것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는 분명히 북한이 다자간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다자간 회담에는 우선 미국과 중국, 북한이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일본과 한국의 참여와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즉 북한은 핵무기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고, 핵을 해외에 수출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 입장에서 후퇴한다면 국제사회는 반

드시 북한의 개방과 다른 체제로의 전환을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즉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라크와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고 하겠다. 즉 이라크와 북한 문제는 같은 의미가 있고, 같은 위기감이 있지만은 이런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질문 : 블레어 총리께서는 지난 1월 영국 의회에서 이라크 다음에 챌린저가 북한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특히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를 만나고 오신 지금 북한 상황을 6개월 전과 비교할 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만나셨을 때 “북한은 실재적 위협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한 북한이 제2의 핵시설을 갖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보도와도 연관이 되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등 이런 지도자들과 나눈 북한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진솔하게 한국 국민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총리께서 다자 대화, 그것은 희망이지만 희망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아주 각별한 민감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여의치 못할 경우 역사가 심판할 어떤 그런 일들이 올지 모른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국민소득 2만 달러 선진국가 실현을 새로운 국정좌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사관계가 개혁돼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는 영미식 모델을 따르느냐, 유럽식 모델을 따르느냐 하는 논쟁도 있는데, 영국병을 겪었고, 영국병을 슬기롭게 극복하신 입장에서 한국과 비즈니스 관계를 넓혀 가시는 입장에서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 :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 말씀하신 기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지난 1월에 제가 북한이 국제사회에 도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대량살상무기와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국제사회에 주는 위협에 있어서 북한이 그 일부를 차지하면서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큰 도전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지금은 제가 어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위협을 하거나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다. 북한 핵문제와 북한의 핵 수출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만 안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여러 가지 개방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다른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럽식, 미국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국식을 따라가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식의 최고 관행을 채택해서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고, 채택하고 계시는 접근방식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 즉 사회적인 연대를 추구하고, 21세기의 도전을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한 노동력을, 근로자들이 그런 힘을 갖게 함으로써 하는 이런 접근방식이 최적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